



‘하브루타’ 교육을 아십니까?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교육방식입니다.

'하브루타'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물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끝없는 질문 속에서 더 나은 대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육 중에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식이
바로 독서교육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오던 말이지요.
도서관 교육감이라는 별명을 갖고 싶을 정도로
평소, 독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서량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브루타식 독서교육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책에서 답을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멍~하니 TV만을 쳐다보는 가족이 아닌
시끌벅적 책을 펼쳐든 가족의 모습ைய요.
굳이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정에서부터 하브루타 독서교육을
벤치마킹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권**





경상남도교육청 매거진

2017년 3월호 (통권 제5호) 월간
2017년 2월 27일 등록 경남 라06699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일 2017년 3월 15일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055-268-1100 <http://www.gne.go.kr>
편집인 홍보담당관 한남애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조영규
주무관 최환준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브레인

+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에 게재된 내용은
허가 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



CONTENTS

스페셜 대담

- 06** 2017 경남교육을 바라보는 다섯개의 시선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대담

배움이 커지는 소리

- 12** 열혈교사 도전기
김해 대청고 전상윤 교사
- 16** 별별 꿈 이야기
경남 로봇고 이동건 학생
- 20** 학생 기자단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김해 울하고
- 24** 심표가 있는 교육청

마음이 통하는 소리

- 26** 엄마들의 수다
“학생부종합전형, 우리 함께 준비해요”
- 30** 다 함께 톡톡톡
“사춘기 자녀와 통하는 법”
- 34** 응답하라 세대 공감
1980년대 입학생이 2017년 입학생들에게
- 38** 심표가 있는 교육청





22

Cover story

아이좋아 경남교육의 슬로건의 '아이좋아'를 이미지화하였습니다.



26



68

생각이 커지는 소리

- 40 물음표가 커지는 교실
"STEAM 교육"
- 44 만나라 교육이야기
"프랑스 교육"
- 48 우리나라 교육이야기
"한자, 재미있게 익히기"
- 52 칭찬합시다



24

아이좋아 경남교육

- 54 새 학기 준비할 것들 "초등학교 입학완성도"
- 56 공공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 60 공공도서관 추천 도서
- 62 특집뉴스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개청"
- 66 교육뉴스 및 정보



경남교육을 바라보는 다섯개의 시선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과의 대담

신뢰

첫 번째 시선_ 고1 학생 마음 훑쳐보기

“학생부종합전형, 선생님을 믿어도 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육청이 여기까지 노력했네?’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천천히 쌓아가야 합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최근, 저희 교육청에서 학업역량 JUMPing-UP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가장 힘든 게 개인의 실력 차이라고 합니다. 편차가 너무 커서 어디에 맞춰야 할지 고민인데, JUMPing-UP 프로그램은 이런 선생님들 고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개인의 실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학업역량 JUMPing-UP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편차가 너무 커서 어디에 맞춰야 할지 고민인데, 이런 선생님들 고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입시를 훨씬 과학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맞춰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가요?

학업역량 JUMPing-UP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네, JUMPing-UP 프로그램은 대학별 전형정보와 학생부 서류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대학별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학교 활동자료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모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성적은 성적대로, 비교과활동은 비교과활동대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아이들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으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담할 때 훨씬 수월해진 거죠. 입시를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던 대입정보 포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 개발했는데, 제가 특허를 받으라고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상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한 입시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대입정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눈에 도드라집니다.

대입정보센터에서 작년 한해 제작한 자료집이 60종입니다. 최근 창원시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토크콘서트도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JUMPing-UP 프로그램은 화룡점점인 셈이죠. 지금은 대학입시도 과학입니다. 학업역량 JUMPing-UP 프로그램은 고교 3년간 체계적으로 학생 개인의 학업역량 향상 추이를 누적 관리하여 학생의 학업역량 강화 및 학생부 서류평가 대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교육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감님이 대입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S대학교에 몇 명을 보냈느냐를 가지고 고등학교 서열을 매기는 건 진짜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대입전형방법에서 학생이 자기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교육청이 할 역할이죠.

개인이라서 혹은 지역이라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교육청이 챙겨서 주는 것을 두고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몬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육 서비스죠. 서울보다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조금 더 나은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복

두 번째 시선_ 초등학교 학부모 생각 듣기

“38개 행복학교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현재, 경남의 행복학교가 38개입니다. 예비행복학교라고 할 수 있는 행복맞이 학교가 2017년에 124개교, 행복맞이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를 합하면 200개이지만, 도내 960개 학교를 모두 행복학교로 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역량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숫자만 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보낼 수 없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에는 꼭 행복학교가 아니더라도 내용면에서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행복학교로 미래형 학교의 상을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행복학교가 아니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은데, 계속 행복학교와 아닌 학교로 구분 짓고 차별화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행복학교 숫자만 늘리는 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역량이라는 건 교사들의 역량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교사의 역량이죠. 하지만 그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최근, 도내 전 학교에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교육활동의 하나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교문 앞에서 복장불량의 지도 대상이 아닌 따뜻하게 맞아줘야 할 대상으로 학생들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한 법입니다.

민주적인 문화가 꽃피는 학교가 바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교육본질을 회복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저, 박종훈이 이야기하는 교육본질은 한마디로 교실과 수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실 문화를 바꾸고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노력이 기울이고 있고요, 교육청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노력이 지금 굉장한데요.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수업 등 학생들의 질문이 있는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배움이 커지는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학생은 수업을 듣고 선생님은 말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을 게 없어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때 적을 게 많은 거거든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배움이 커지는 교실과 수업이 제가 나아가려는 교육본질입니다.



학교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한 법입니다.

민주적인 문화가 꽃 피는 학교가 바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변화

세 번째 시선_ 6년 차 교사의 생각 들여다보기

“여전히 행정업무가 많아요”

솔직히 정신이 없습니다.(하하하) 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행정업무 적정화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 잡무를 줄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아이들의 곁으로 돌려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제로가 될 때까지 요구를 할 것입니다.

행정업무가 없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 제가 행정업무 없는 학교, 공문 없는 학교를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률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 두 군데를 공문 없는 학교로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도 행정업무가 줄어들지 않아요. 이유가 뭐고 하니,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자주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학교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문을 만들어 낸다고요?

☞ 그렇죠. 관례에 따라 쓸데없이 만들어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할 때 비치해야 될 장부가 50종이 넘는데 10종으로 줄이라고 말이죠. 감사부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많아야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자료를 적게 놔두면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학교 일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범정장부와 비범정장부외의 장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3월 새학기에 학교가 가장 어수선하고 바쁜데, 그 어떤 공문도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투자할 시간을 뺏지 말라는 거죠. 교육청도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도 이제 되도록 필요 없는 장부나 계획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3월 새학기에 학교가 가장 어수선하고 바쁜데, 그 어떤 공문도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투자할 시간을 뺏지 말라는 거죠.

안전

네 번째 시선_ 초등학교 학부모 고민 들어보기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요?”

이번에 우리가 270억 원을 들여서 진주에 ‘학생안전종합체험관’을 짓습니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체험버스, 25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재난 안전에서부터 학교 폭력, 작업안전, 방사능 유출까지 모든 안전 요소를 담아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종합체험관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을 체험하는 곳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을 만들어서 체험관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은 체험버스를 만들어서 지진 체험까지 버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쯤이면 버스가 운행이 될 거예요.

또, 이번에 학교 교통 안전점검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교사를 2명을 따로 발령을 내서 경찰청 직원 2명과 함께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과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조를 바꿔 안전이 확보되는 곳이면 구조를 바꾸겠다.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곳은 사람을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등·하교 안전, 재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까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작은 틈새도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목표가 될 수가 없죠.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구조를 바꿔 안전이 확보되는 곳이면 구조를 바꾸겠다.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곳은

사람을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독서

다섯 번째 시선_ 지역민의 생각 들어보기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처럼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도서관 교육감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앱만 깔면 우리 교육청 소속 24개 공공도서관이 내 손으로 쏙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도민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도서관의 책도 받아 볼 수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 책을 신청하면 학교도서관까지 책을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사서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정원을 좀 늘리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죠.

도서관 교육감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정도로
독서교육에 관심이 많은 까닭이 있으신가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투자가 저는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게임과 컴퓨터에 빠져서 책을 안 읽는데, 다양한 책읽기 운동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대신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시는가요?”라고 인사말을 바꾸는 게 어떨지도 제안을 했어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있었듯이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동 아니면 한 가족 한 책 읽기 운동도 괜찮잖아요. 한 회사 한 책 읽기 운동도 좋고요.

한 학급 한 책 읽기 운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도 책으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행복한 상상을 해 봅니다.

책읽기 운동으로

도시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책읽기 운동은 도시의 격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공통된 소재로 독서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드라마 보면서 아이 보고 책 읽으라고 하면 안 읽죠. 어른도 아이도 함께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책 읽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진다면 도시의 문화는 훨씬 성숙되고 품격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대신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시는가요?”라고
인사말을 바꾸는 게 어떨지도 제안을 했어요.





전국 1등 우수사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학습자 중심 거꾸로 교실
전국 1등 우수사례

Google

CLASSROOM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새롭고 흥미로운 수업방식에 갈증을 느낀 전상윤 선생님.

유레카! 선생님이 찾아낸 샘은 바로 구글 클래스룸의 가상교실이다.

샘에서는 새롭고 즐거운 영어공부가 풍풍 솟아난다.

열혈교사 도전기

김해 대청고등학교 _ 영어 담당 전상윤 선생님

김해 대청고등학교 영어 담당 전상윤 선생님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중이다.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0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KOSETA) 학술포럼 우수 수업사례 발표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학습자 중심 거꾸로 교실'이라는 주제발표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경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직접 수업에 적용해 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얼떨떨하기도 하다.

전상윤 열혈교사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과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방법들은 많은데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찰나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용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한국 고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봤죠.”

구글 클래스룸은 교사와 학생 간에 원활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가상교실로, 선생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자료를 만들어 올리고 채점까지의 과정을 모두 할 수 있다. 특별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담당 교사에게는 무제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가상교실을 활용하면 종이 없는 교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 자료를 볼 수 있고,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업 전에 제공된 관련 자료를 통해 예습을 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학생들끼리 서로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영어 대본 쓰기 등의 협업과제를 하기에 편리하다.



영어, 답답한 교과서를 탈출하다.

인터넷의 바다에서 재미와 실용성을 낚아라!

“사실, 학교에서의 우리 영어 교육은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본문을 읽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주가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가상교실에서의 수업은 틀에 박힌 공부가 아니다. 해외 동영상 보고, 교과 관련 퀴즈를 풀고, 영문 기사를 보고 댓글놀이를 하면서 자유롭게 영어를 공부하는 놀이터이자, 학습공간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영어를 교과서 안에서만 배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 실용적인 영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영상물을 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또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단지 시험점수를 위한 영어공부가 아니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공부, 틀에 박힌 영어수업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 있는 영어수업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열혈교사 도전기

전상윤 선생님

김해 대청고등학교



전형적인 수업방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집이든 어디서든
또 스마트폰이든, PC든, 태블릿을 통해서든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놀이 하듯 함께하는 영어수업, 학생이 선생님이 되는 수업!

가상교실 수업은 댓글을 통한 의사소통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댓글문화에 익숙하다. 친구들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이야기를 나누고 논다. 활발한 소통이 있는 이 댓글문화를 수업으로 가져오고 싶었다.

“거침없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댓글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걸 참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영작을 많이 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댓글놀이 문화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엿볼 수도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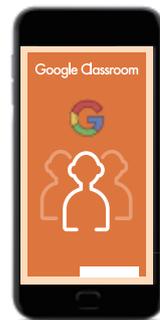
나중에는 거꾸로 생각을 바꿔서 학생들에게 교과와 관련해 재미있는 동영상을 찾아 올리고 퀴즈도 내보라고 했다. 또 아이들에게 본문 한 페이지를 정해 분석해서 올리고 댓글로 달린 질문에도 책임지고 답변을 하게 했다. 가상교실에서는 학생 하나하나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 클래스룸의 구성원 모식도에서는 따로 선생님을 찾을 수 없다.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모든 참여자가 가상교실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재미있는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올릴 수도 있고, 재미있는 수업방식을 제안하고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가상교실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

“학생들 반응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어요.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중요한 정보를 떠다 먹여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요. 아이들도 인쇄물을 만들어 주고, 중요한 부분을 꼭 집어주는 방식이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참여해주고 재미어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큼니다.”
전상운 선생님의 가상교실 수업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다 보니 학생들의 꾸준한 참여가 아쉽기도 했다. 학생의 학습 태도나 성취도 등이 자료로 남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수행평가로 활용하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시작한 일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흥미를 위해 도입한 방식이 아이들을 구속하고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다.

“전형적인 수업방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집이든 어디서든..., 또 스마트폰이든, PC든, 태블릿을 통해서든...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상운 선생님은 다른 교육용 앱도 활용해 볼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교육용 앱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큰 욕심도 있다. 우리 교육 현실에 더 적합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가상교실을 꿈꾼다.



Google

CLASSROOM



내일의 로봇공학자

경남로봇고등학교
3학년 이동건

경남로봇고등학교 3학년 동건이는 지난해 11월,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전국의 창의력 넘치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을 주고 있다.

동건이는 1학년 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공바퀴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출품했다. 동글납작한 일반 타이어가 아닌, 말 그대로 공 모양의 바퀴를 장착해 대각선은 물론 회전 등 바퀴의 조향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아이디어였다. 작품은 은상을 차지했고, 그 작품을 본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로도 나가볼 것을 적극 추천했다.



“인재상 수상이 결정됐을 당시 저는 베트남에 해외봉사를 나가 있을 때라 수상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귀국하고 나서야 알게 돼서 얼떨떨했죠.”

동건이의 경력은 화려하다. 전국 단위로 치러진 '2013 Robofest Korea' 로봇창작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재난 지역을 탐사하는 지렁이 모양의 구조 로봇, 스스로 지형을 파악해 이동하는 무선자동차 등을 만들어 내며 전국 단위 로봇 대회에 연속해서 이름을 남겼다.





어릴 때부터 기계를 보면 뜯고, 다시 조립해보는 것이 일상이었던 동건이는 목수였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말한다. 목공자동차, 썰매를 똑딱똑딱 만드는 외할아버지를 보며 동건이도 무엇이든 만들고 조립하는 일에 흥미를 붙였고, 부모님 역시 동건이의 아이디어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뭐든 귀담아들어 주었다. 동건이가 로봇과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됐던 일본 로봇 '아시모'와의 만남도 가족, 특히 어머니의 배려 덕분이었지만, 고등학교 진학은 얘기가 달랐다.



“처음 특성화고를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집이 창원이라 학교까지 오려면 버스도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학교라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교실에서 제가 좋아하는 ‘로봇’을 공부할 수 있다니, 그 기회를 제가 놓칠 순 없었죠.”

동건이가 다니고 있는 경남로봇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함안대산고에서 경남로봇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동건이가 졸업하면 로봇고 2기 졸업생이 되는 셈이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경남로봇고는 로봇기초, 기초제도, 전기전자 등 일부 과목에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동건이에게는 그 수업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다.

앞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냐는 질문에, 동건이는 “글썄요”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너무나 목표가 확실한 학생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대답이었다.



“지금 일본은 사람들 도와주는 간호, 복지 로봇, 독일은 제조업에 특화된 로봇 등 각자 잘 만드는 로봇 분야가 달라요.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로봇 분야가 없다는 건데, 그게 어떤 분야가 될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놓치지 않고 보면서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서도 한마디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로 잘 알려진 데니스 홍 교수의 말이었다. ‘가장 차가운 금속으로 가장 따뜻한 기술을 창조한다.’ 어떤 분야의 로봇이 됐든, 이 말이 담긴 로봇을 만들겠다는 각오였다.



“저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실패하면 틀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또 실패하면요? 또 도전하면 되죠.”



RO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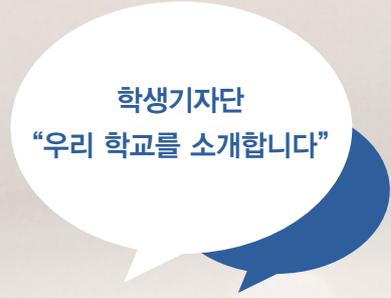
저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실패하면 틀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또 실패하면요? 또 도전하면 되죠.

경 남 로 봇 고 등 학 교
이 동 건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도 동건이의 도전은 계속됐다. 지난해 경남 4위에 머물렀던 전국기능경기 대회 모바일로보틱스 부문에 올해 다시 출전한다며, 동건이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 채 인사를 건넸다. 로봇을 어떻게 움직일지, 차가운 금속을 바라보는 동건이의 눈빛이 따뜻했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김해울하고 방송부 YBS를 소개합니다

2006년 3월 2일! 교사라는 타이틀을 등에 지고,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시간이 벌써 10여 년!
 지난 10년 동안의 교사라는 자부심과 함께
 말로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느낄 즈음
 김해울하고 방송부라는 새로운 업무는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 한 줌의 빛이 되기에 충분했다.
 우리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찾아가는
 방송부 아이들과의 마지막 만남 속에서 도전이라는
 신선함을 던져준 김해울하고 방송부 YBS의 미래상을
 보게 되었다. 이런 우리들의 발자취를, YBS방송부
 기자단의 멋진 모습을 챗터별로 소개합니다.



#1

감성방송 청취자들에게 드리는 YBS의 편지

2학년_ 김수지, 김나현, 김정연, 김도경, 황현수, 김건

1학년_ 김원교, 오서현, 문건호, 임현우, 우수현, 진유영

To. 김해울하고 감성방송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김해울하고 방송부 YBS에서 편지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저희 YBS에서는 지난 1년 동안 8회라는 감성방송을 통해 김해울하고등학교 학생들의 감성을 충전시켜주기 위해서 감.성.방.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와 많은 양의 공부에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새롭고 더 공감되는 감성방송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곤 해요. 사연을 받아 학부모님과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도 저희의 일이지만 학생들의 일상에 작지만 달콤한 재미를 주는 것 역시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도전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책 읽어주는 방송’, ‘수능 응원 방송’, ‘크리스마스, 핼러윈 등 기념일 특집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을 할 때마다 감성방송 청취자들이 더 즐기실 수 있게 ‘올하 로또’, ‘실시간 전화 퀴즈’ 등의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청취자들이 눈치를 챘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하던 생방송 말고도 녹음방송까지 시도해 성공을 이끌어냈죠! 저희가 감성방송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방송을 통해 학생들의 귀에 들리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방송을 듣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없던 힘도 저절로 생깁니다.

야자에 학원까지 다니느라 지쳐 잠에서 깨지 못한 아침에 잠을 참고 저희의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덕에 더 좋은 감성방송을 들려주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 고마움과 기쁨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의미가 있는 감성방송을 만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감성방송을 들려줄 수 있는 큰 발판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은 알아주고 항상 응원해준답니다. 좋겠죠? 그 기대와 응원에 힘입어 더 좋은 감성방송을 기획하고 방송해 김해울하고의 감성을 책임지는 방송부 YBS! 다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라요! Fighting

From. 김해울하고 방송부 YBS



도전! 티볼 영상을 통해 김해울하고에 날개 달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YBS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2015년 전국대회에서 3등을 차지한 여자 티볼부인 빅보스킹이 생각났다.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빅보스킹. 우리는 올해 전국대회 1등에 도전하는 빅보스킹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김해울하고 학생들에게 티볼부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2

오늘도 목표를 향해

빅보스킹은 학년 구분 없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초적인 연습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연습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그 모습들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생각하며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한 발짝

도 대회가 있는 오늘! 경기가 뜻대로 잘되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당당히 우승하여 전국 대회에 한 걸음 다가갔다. 실패해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팀워크가 있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영상을 제작하다 우연히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UCC 공모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또한 새로운 한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다.

꿈꾸는 순간

전국대회에서는 아쉽게도 2등을 하였다. 하지만 전국 2등이라는 순위 또한 대단한 것이며 위로 올라갈 곳이 남았기에 빅보스킹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꿈은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꼭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단, 그때가 지금이 아닐 뿐. 이제 다시 각자의 꿈속으로 빠져들 시간이다.

미완성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김해울하고 학생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YBS가 제작한 영상은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이 상은 몇 번의 공모전에 참가하여 실패했었던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되었다. 하지만 단지 수상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 영상이 교내에 몇 번이나 방영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에 더욱 뿌듯함을 느낀다. 그리고 또 도전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2학년 김수지, 김나현 / 1학년 김원교, 진유영



경남교육뉴스! 내 동료가 되라! 김해율하고등학교 방송부 YBS

#3

정연: <http://youtu.be/RMi44MDHGqM>

수지: 뭐임?ㅋㅋㅋ 저번에 경남교육뉴스 한 거 아님??

정연: (경남교육뉴스 관련 사진)

정연: (경남교육뉴스 관련 사진)

정연: 우리 같이 했었잖아.

수현: 워~~ 진정해. 근데 저거 해보니깐 꽤 꿀잼 아니었음??

나현: 인정

나현: 진로에도 도움되고 방송부로서 발 넓게 활동할 수 있었잖아

유영: (아련한 이모티콘) 흑역사를 남기긴 했지만 쉽게 올 수 없는 기회였어.

YBS : 늘 열려 있는 아이들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쓰고,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는 경남교육뉴스의 취지에 맞게 우리 YBS에서도 일일 리포터로서 하반기 특집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저희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만 만족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도전하는 능동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정연 : 일일 리포터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을 느낀 것 같아요! 친구들 모두 함께하진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쉽게 오지 않는 기회였기에 모두 한 발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탄 김해율하고 방송부 YBS가
경남교육뉴스에 도전하고
동아리원들의 마음이 담긴 대화창입니다.
그리고 활동 후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2학년_김정연, 김수지, 김나현

1학년_우수현, 진유영, 김원교



52th 경남중등학생종합 학예발표대회

미술분야 수상작품전(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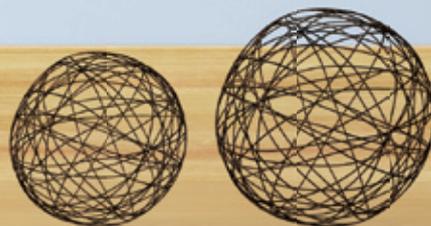
한국화 배재영 응상중 3



입체구성
김륜경 마산무학여고 2



사진 서종학 밀양고 1





풍경화
김유리 명덕고 2



조소
이지나 진교중 2



사진 김희수 계룡중 2



공예
김보민 마산여고 2



판화 허다임 거제옥포고 1



학생부종합전형, 우리 함께 준비해요



아이의 꿈은
스스로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꿈을 펼쳐라

정은정(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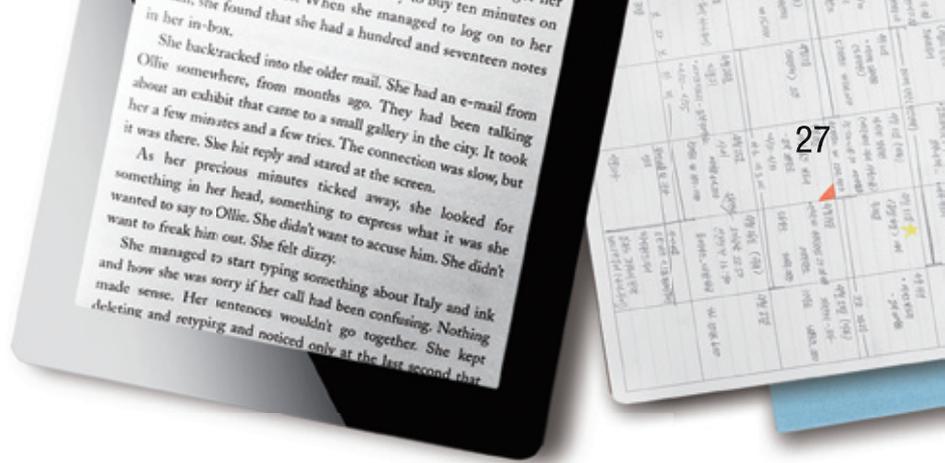
고3 딸을 둔 엄마,
테이크아웃 커피가게를 운영

서영옥(42)

여성단체에서 활동 중인
두 딸의 엄마

박지현(44)

집에선 두 아들 엄마,
밖에선 어린이집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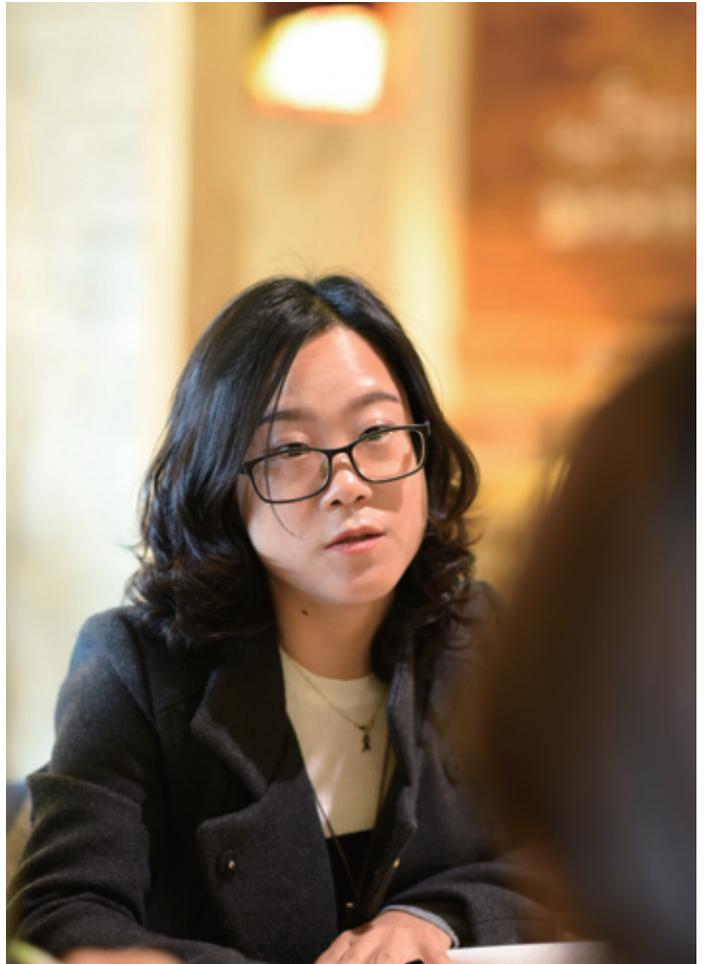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이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업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입시의 좁은 문 앞에서
 떨고 있는 건 수험생뿐이 아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성적만큼이나 입시정보가 중요해진 요즘,
 수험생 엄마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장 큰 관심사다.
 2018년 입시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이
 64%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그동안 성적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던
 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새 학기를 앞두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세 엄마가 모여 열띤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부종합전형, 어디까지 아시나요?

박지현 전 작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입시학원에 상담하러 갔더니 학교행사나 축제에서 참여동기나 활동실적을 쌓아야 '학생부종합전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반장이나 선도부를 해두면 좋다고도 하고요. 황당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뭘까'란 고민도 같이 들었죠.

서영옥 그동안 낯두로 흘러만 듣다가 오늘 인터넷 검색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인생관을 어려서부터 정리할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진로나 취미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은정 맞아요. 성적만 보는 입시가 아닌란 점은 좋아요.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는 점도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학생부종합전형 활동 쌓기' 카페도 생겨나고 스펙 과외도 받더라고요. 그걸 보니 어찌면 또 다른 활동 쌓기를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도 들어요.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서영옥 자원봉사는 아이들에게 먼저 같이하자고 권하는 편이에요. 특히 방학 때요. 비영리단체나 도서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근데 요즘은 '학생부종합전형'만을 위해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 걱정이 먼저 들어요. 독서도 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네요.

박지현 맞아요. 수험생들 얼마나 바빠요. 봉사활동을 찾는 것도 일이에요. 오죽하면 엄마들이 직접 대학 맞춤 자원봉사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정은정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럴 땐 대안학교에 보내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성적을 떠나 자발적으로 독서나 봉사활동을 하니까요.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방송부나 학생부 활동도 좋아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인성도 평가항목에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주관이 생기고 표현하는 힘도 길러지니까요.



● 늘 아이에게 '인생에서 행복이 먼저다'라고 말하는데, 대학도 크게 보면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인생의 첫 선택인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순위와 숫자로 매기지 말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아이의 가치와 재능을 잘 발견했음 좋겠어요.

학생부종합전형, 알고 준비합시다



학교와 교육청에 바란다

박지현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교내 행사나 대회가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성적 위주의 대회가 많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요.

서영옥 맞아요. 학교생활이 더 중요해진 만큼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행복해져야 좋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까요? 개성 있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줄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정은정 교무실에 들른 적이 있는데 선생님 책상 위에 서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행정업무가 그렇게 많은데 아이들을 바라볼 여유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살필 시간이 많아져야 '학생부종합전형'이 제대로 빛을 발할 텐데 말이죠.

박지현 사실 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많이 헷갈려요. 부모들이 바뀐 입시제도에 대해 알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난달에 창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토크콘서트'도 했다고 들었는데 뒤늦게 알았어요.

서영옥 늘 아이에게 '인생에서 행복이 먼저다'라고 말하는데, 대학도 크게 보면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인생의 첫 선택인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순위와 숫자로 매기지 말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아이의 가치와 재능을 잘 발견했음 좋겠어요.



인생에서 1순위 = '행복'



소통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자녀교육 감 잡기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다



communicatio



소통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자녀의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함으로써
행복감을 맛보도록 부모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에게는 판단하지 말고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자.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자녀교육 감 잡기

다함께 Talk Talk Talk

요즘 화두가 되는 '품위 있게 살기'에서 품격 높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생각해 본다.
우리는 품위 있게 살기 위해 좋은 집과 좋은 차,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가지길 원하지만, 자신의 인격을
바르게 다잡고 격 있는 말투와 행동,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데 소홀한 경우가 많다.

품격은 그냥 만들어지거나 타고나는 것보다 자신을 수양하고 공부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로부터 나온다.
품격 높은 부모가 되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자녀교육방법을 깨치는 순간 부모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우선은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소통할 소

통할 통

疏通

on

☞ 품격 높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1 첫째, 품격 높은 부모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긍정 마인드를 심어주는 부모이다.

내가 문제 있는 부모인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상태인가? 자녀를 건강하게 훈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가? 대부분 부모는 자신의 자질 부족을 알고 있지만, 주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정해 놓은 좋은 부모 역할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한다. 누구도 부모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툴다. 단지 내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 자녀와 친밀한가? 자녀에게 용기와 따뜻함을 주는가? 자녀에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녀는 항상 내 편을 찾고 있다. 항상 부모는 자녀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자녀도 그리 생각하여야 행복하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봄같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생기 넘치고, 희망적인 부모인가? 여름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일관성 없는 부모인가? 여유롭고 풍성하고 편안한 가을 같은 부모인가?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원칙적인 겨울 같은 부모인가? 사계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자녀의 기질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는 탄력적인 부모가 되면 좋겠다.

부모의 스타일에 자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을 때 소통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라 하겠다.



자녀의 기질을 간략하게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머리형 자녀에게 장형 부모가 즉흥적이고 지시적으로 행동을 갑자기 옮기라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것이다. 시험을 망친 가슴형 자녀에게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데 뭘 난리야”하고 소리 지르는 장형 부모의 한마디에 상처받는다.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 소통이다.

2 둘째, 품격 높은 부모는 감정과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는 부모이다,

자신의 스트레스와 갈등 문제를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화풀이하는 것보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조절하며 갈등 문제를 즉시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폭력보다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부모이다.

3 셋째, 품격 높은 부모는 사랑을 다양한 각도로 실천하는 부모이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추억을 만들어 나가며 끊임없이 사랑을 알려주는 부모이다.

☞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에서 유념해야 할 것들!

1

첫째, 자녀 지도의 목적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훈육(discipline)’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교수법(instruc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지
도하면서 체벌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자존감도 상하지 않
게 한다.

2

둘째, 자녀의 부정적 행동을 지도할 때에는
자녀가 개선의 여지를 보일 때를 이용하여
격려하는 기회로 삼는다.

3

셋째, 자녀를 지도할 때에는
되도록 부모로서 강력한 주장적인 발언을
줄이도록 한다.

4

넷째, 자녀를 훈육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해야 한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한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되면 부모의 지도를 받아들이기 쉽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갈등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가 원하는 바를 자녀에게 정
중히 요청하는 것이며, 부모의 정중한 요청은 자녀의 행동을 변화
시킬 수 있다. 소통은 부모가 하고 싶은 말보다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소통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
들어 주는 것이다.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자
녀의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함으로써 행복감을 맛보도록 부모가 존
재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에게는 판단하지 말고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자.
예를 들어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친구들이 몰래 괴
롭히니? 어떻게? 친구들끼리 서로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등
의 3인칭 질문이 유리하다. “네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렇게 됐
니?” 하고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화는 독이 된다.

평소 관심 주제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기개방훈련을 통해 개방적인 자아를 표현할 때 친밀감이 생겨 소
통의 발판이 된다.

부모도 자녀에게 상담하고 도움을 청하고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
는 습관을 훈련해야 한다. 파트너십 부모가 되길 바란다. 함께 손
잡고 따뜻하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 말이다.



응답하라 세대 공감



1980년대 입학생이 2017년 입학생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미래의 성공'이라는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말았으면 해요.

오늘의 행복을 억누르며 고생을 참아낸다고 해서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늘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우완
(창원시 숲속마을도서관 관장)





산수유나무 가지 끝에 노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봄이에요. 노란 산수유, 노란 개나리, 노란 수선화……. 봄은 그야말로 노란 꽃 잔치를 열어 여러분의 입학울 축하해주고 있지요. 자연의 축복 속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입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저씨는 창원시 내서읍에서 ‘숲속마을도서관’이라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 까지도 이 아저씨를 ‘우완 쌤’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보다 30여 년 정도 일찍 학교에 다녔으니 딱 한 세대의 ‘세대차이’가 나는 쌤이군요. 30여 년 전의 입학식 풍경은 어땠으며, 그 당시의 입학식은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를 들려드리면서, 이제 입학울 맞이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해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980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지요. 학교까지는 3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서 걷어가기만 만만치 않은 거리였죠. 그리고, 지금처럼 가족들이 입학식에 함께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3학년이 되는 누나의 손을 잡고 입학식에 갔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하얀 손수건을 옷핀으로 고정하여 달게 되어 있었는데, 흘러내리는 코를 닦는 용도였어요. 선형학습이라곤 겨우 자기 이름 정도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촌 인구가 지금처럼 적지 않을 때여서 입학생이 50명씩 세 학급이나 되었지요. 입학과 동시에 150명의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것이, 그리하여 더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초등학교 입학이 가져다준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학교는 커다란 놀이터였던 셈이죠.

초등학교 입학이 커다란 놀이터와 수많은 놀이 친구들을 안겨주었던 것에 비해, 중학교 입학은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을 안겨주더군요. 그것은 아마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용납되던 것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포츠머리’라는 두발규정으로 헤어스타일을 규제하는 것처럼 중학생이 되려면 수많은 자유를 포기해야 했죠.



매월 시행되던 월말고사와 복도에 성적순으로 커다랗게 붙어 있던 '성적우수자명단'이 주는 무언의 압박은 '아, 이제는 학교에 놀러 오기는 틀렸구나!' 하는 탄식을 자아내더군요. 그리고 '선도부'라 불리던 3학년 선배들은 또 어찌나 무섭게 생겼던지…….

고등학교는 연합고사를 치르고 진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가 부모님 품을 떠나 하숙생활을 해야 했고, 낯선 도시에서 아는 친구라곤 한 명도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어서 몹시도 떨리고 불안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구나 그 학교는 과거의 명문고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무척이나 엄격하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었기에 입학 후 한 달을 숨 막힘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생활이었지만,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쉽게 적응해가는 동물인지라 또 그렇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학과 졸업을 반복하는 동안에 어른이 되어 있네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아이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이로서의 삶이 있고 어른으로서의 삶이 있으며 나이가 더 들면 또 그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이 단지 어른으로 가는 관문이 아니라 시기 별로 누리게 될 자기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면 해요.



아이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고. 아이로서의 삶이 있고 어른으로서의 삶이 있으며 나이가 더 들면 또 그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많은데 그런 학부모들에게 다른 지인들은 '이제 고생 시작이네요.'라는 말로 축하와 위로를 동시에 하곤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은 곧 입시경쟁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하기에 그렇게들 말하는 것일 테지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입학이 입시지옥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기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 실천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미래의 성공'이라는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말았으면 해요. 오늘의 행복을 억누르며 고생을 참아낸다고 해서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늘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행복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거나 오늘의 고생을 이겨내어야만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지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곳만을 향해 달리는 무모한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알파고의 영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요.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이미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래지 않아 많은 직종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들 해요. 그러면 10년이나 20년 후에나 사회에 나갈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가올 변화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하겠지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능력을 동일시하는 관점에서도 벗어나야겠지요.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서 양궁경기장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이번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침착하게 10점을 쏘곤 했습니다. 상대 팀 선수들의 화살이 과녁 중심의 왼쪽 6점 칸 주변으로 날아가 꽂히는 반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쏜 화살은 꼬박꼬박 10점에 가서 맞았습니다. 10점을 계속 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더니 '오조준'이었다고 합니다. 즉, 바람이 과녁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차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과녁 중심의 오른쪽 6점을 향해 화살을 날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또한 주변의 우려에 굴하지 않고 6점을 향해 '오조준'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 많은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이제 갓 입학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꿈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행이길 바랍니다.



정물화
박상아 창원남산중 3



디자인
전유경 마산제일여중 3



디자인
원현서 창원여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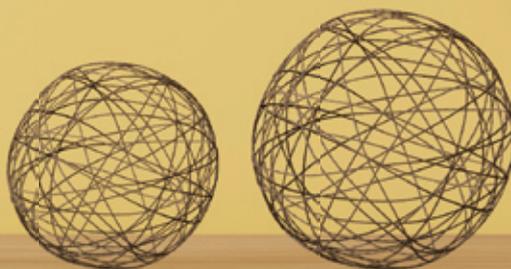
풍경화 서혜진 계룡중 3



판화 박건호암중 3



드로잉
우시은 김해월산중 3



52th 경남중등학생종합 학예발표대회 미술분야 수상작품전(최우수)



공예
박민정 합천초계중 1



디자인
곽니영 경상사대부고 2





융합인재교육 (STEAM)으로 과학교육의 미래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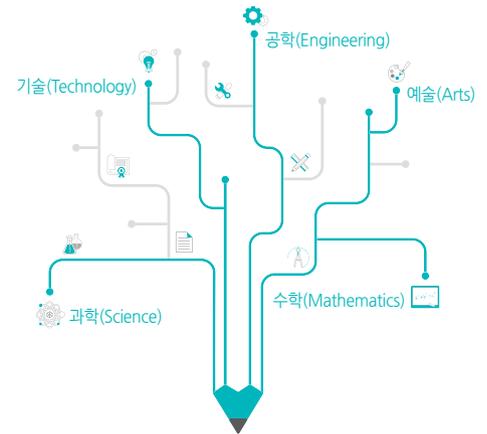


지난해 1월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 신입생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술과 자본 중심의 산업사회가 끝나면서 정보와 지식 기반의 새로운 사회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시대에 맞는 인재의 조건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의 말에 대답을 잘하거나 기말고사를 잘 보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운이 좋아 하나라도 더 맞으면 남들보다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든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였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더 이상 지식만 많이 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은 옛날 지식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함께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중심에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A), 수학(M)을 융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입니다. 융합인재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의 삶에 과학을 녹아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설계하고 탐구하며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당연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기존 교육처럼 한 과목의 지식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학문 및 분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 학문에 숨은 유용한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S 과학(Science)

T 기술(Technology)

E 공학(Engineering)

A 예술(Arts)

M 수학(Mathematics)

5가지 분야의 학문이 결합된 융합인재양성
교육을 말합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

단계요소

융합인재교육(STEAM)의 출발점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마주치는 소재를 통해 학습 내용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상황 제시’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서 놀기 위해 어떤 모자를 만들 수 있을까?” 등을 통해 아이들이 흔히 겪는 상황과 연관지어 좀 더 흥미를 느끼고 학습활동에 집중하게 합니다.

다음 단계는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구체화하게 되고 토의를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나타냅니다. 단순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 학문에 흠어진 지식을 융합하기도 하고 모둠 활동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꼭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원한 모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와 같이 “How”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공학과 “햇빛을 차단하면 왜 시원할까?”와 같이 “Why”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적 체험은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창의적 설계를 통해 자신의 문제 상황과 연결하고 설계하여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면 그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교사의 적절한 보상과 격려 등도 포함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이나 실패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수정·보완할 점을 찾아 재도전하는 과정 또한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감성적 체험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학생이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 제시



학생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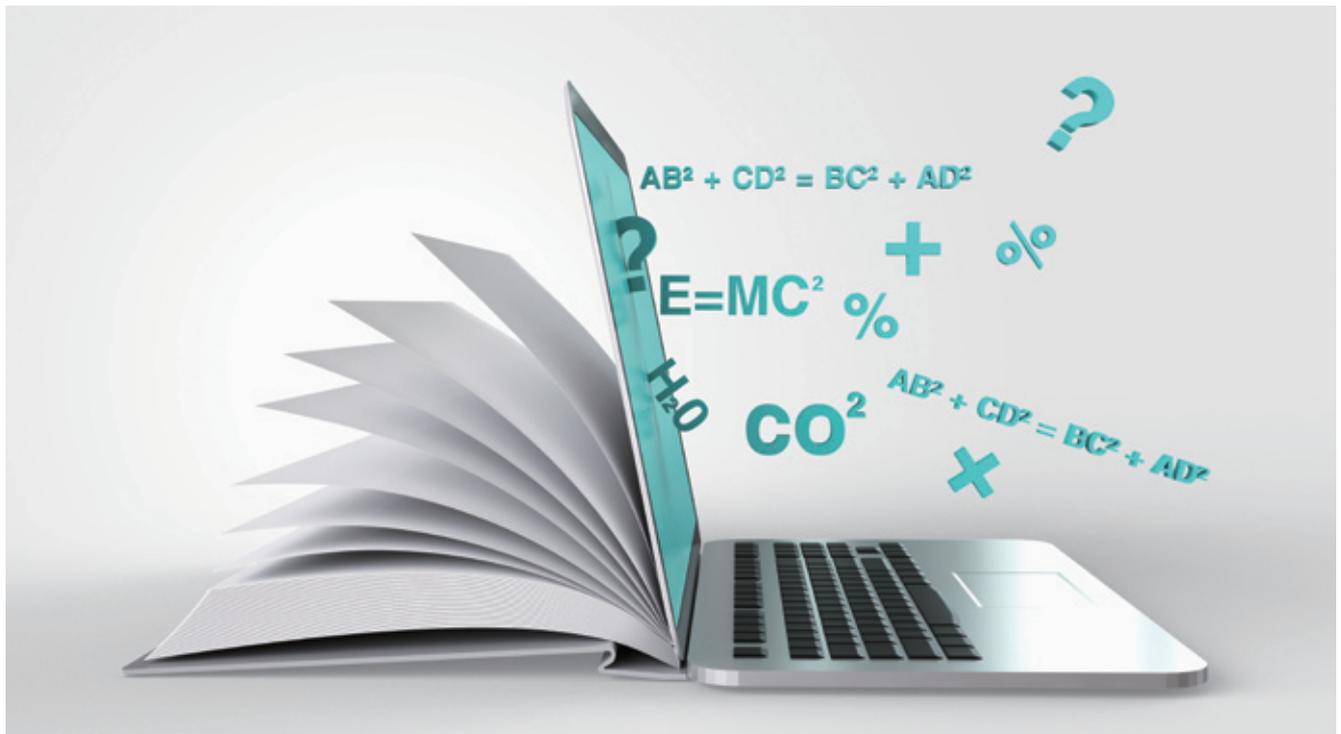
성공의 경험

융합인재교육 (STEAM) 학습 준거(틀)

흥미, 동기, 성공의 기쁨 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하는

감성적 체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 융합인재교육(STEAM)

우리나라만의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징으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입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STEM은 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 등 4분야 각각에 중점을 둡니다. STEM에 예술(Art)을 접목한 STEAM은 초창기에는 미술을 예술 영역의 융합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인문학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폭넓은 형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가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배려하여 조화를 이루려는 인성교육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유연성과 과학적 상상력을 포함한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융합인재교육은 교육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여러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다양성에 한계를 두지 않을 때 더욱 발전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STEAM과 같은 과학 수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공감을 잘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소통하며 함께 느낄 수 있어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은 스스로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을 때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교실의 주인을
학생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딴 나라 교육이야기 교육제도를 통해 본 우리의 과제



프랑스의 대학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문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그리고 그랑제콜은 이론 연구에 치중한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실무형 엘리트를 키워낸다.



법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파리 1대학

예술과 언어학을 중심으로 한
파리 3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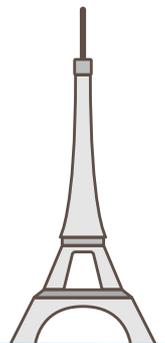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파리 4대학

소르본

중세 파리대학의 전통을 이은
파리의 대학

의학과 사회과학 중심의
파리 5대학

프랑스 대학





행정관료 양성을 위한
국립행정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고등사범학교

그랑제콜

공직 영역에서의 전문적
실무자 양성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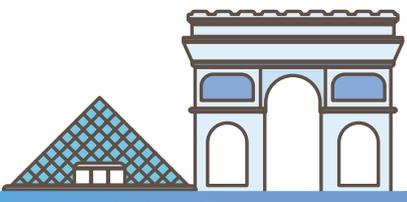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할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에콜 폴리테크닉



우리의 공교육 정상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대학 서열화 문제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이라는 문제의식에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게다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법조계의 끊임없는 비리 사건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현재의 서열화된 대학교육 체제가 만들어내는 엘리트 양성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와 사회적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교육 개혁의 요구를 강렬하게 뽐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공유대학을 통한 대학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고, 지방에서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연합대학 구성과 대학 통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부산의 사립대들도 합종연횡을 시작했다. 학벌 체제의 중심에 있는 서울대의 '폐지'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급진적' 정치인들의 단골 정책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논란만을 일으킬 뿐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델이

프랑스식 대학 모델이다.

흔히 지역명에 I, II, III, IV, V 등의 숫자를 붙인 대학명은 평준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대학 평준화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학제도는 특수한 프랑스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 프랑스의 대학 정책 이면에는 고등교육 체계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랑제콜과 대학으로 이원화된 고등교육 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한국의 대학 서열화를 비판하는 논거로 68운동의 소산인 대학 평준화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폴레옹 시대의 산물인 그랑제콜을 통해 프랑스식 엘리트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평등한 프랑스 교육의 허구를 짚기도 한다. 이러한 단순한 분리는 우리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가는 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대학과 그랑제콜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교육 제도가 아니라 바로 이 두 기관으로 구성된 프랑스식 고등교육 체계가 가지는 특성이다. 프랑스 고등교육의 이원화에서 비롯된 대학과 그랑제콜의 상호보완 관계와 경쟁 관계는 프랑스의 고유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회원국 상호 간 학문 교류를 위한 교육 표준화의 필요성에 의해 조정되기도 하는 등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고 변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 소르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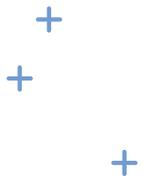
전통적인 학문 분야를 담당한다.

즉 인문학, 법학, 의학, 기초과학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1968년 이후 대학들은 학문 분야별로 특성화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소위 소르본이라고 불리면서 중세 파리대학의 전통을 이은 파리의 대학들은 법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파리 1대학, 예술과 언어학을 중심으로 한 파리 3대학,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파리 4대학, 의학과 사회과학 중심의 파리 5대학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같은 인문학에 특성화되어 있다고 해도 파리 1대학은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이 모여 있고, 파리 4대학의 경우에는 전통을 중시하는 학문적 경향을 가진 학자들이 문학을 중심으로 역사, 철학을 담당하면서 서로 전공 영역에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랑제콜은 공적 영역에서의

전문적 실무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사 양성을 위한 고등사범학교, 행정관료 양성을 위한 국립행정학교,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할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에콜 폴리테크닉 등이 그것이다. 그랑제콜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 고연봉 보장, 공무원 채용 등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어서 주로 명문 학교들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랑제콜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서 공동학위를 받는 구조가 많아 학사 운영에 있어서 대학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쉽게 말하자면 양질의 수업을 대학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그랑제콜이지만 학자들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는 '소르본 교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대표적인 그랑제콜 중의 하나인 파리정치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향후 정치인이나 관료가 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진학하는 학교라는 비아냥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대학의 학문적 깊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파리정치학교 졸업생들이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국립행정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실무와 이론의 조합은, 대학에서 이론만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리정치학교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능력은 종종 대학 졸업생들의 비아냥거림이 단순한 부러움의 표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프랑스의 대학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문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그리고 그랑제콜은 이론 연구에 치중한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실무형 엘리트를 키워낸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의 고등교육 체계도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랑제콜들은 대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히 독립된 학위를 발급하기 위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그에 맞서 우수한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학생 선발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나친 전문화로 인해 세계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자 미국식 대학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첫 단계가 연합대학 모델 구축으로 몇 개의 대학과 그랑제콜의 연합으로 구성된 연구·교육단위를 만들어 인문, 사회, 법, 의학, 자연과학, 공학 등 학문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아직 의문인 상태이다.



F R A N C E



우리는 프랑스의 교육제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적어도 프랑스의 교육 현실은 우리가 무턱대고 프랑스식 모델을

외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프랑스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프랑스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해 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자, 재미있게 익히기

우리나라
교육이야기

아동과 성인, 누구나에게 쉬운 접근법





가끔 음식점이나 찻집에 들르면 차나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실내 분위기와 인테리어를 둘러보게 된다. 이때 시선이 멈추고 고정되기 일쑤인 대상이 액자이다. 액자 속의 그림이 '멋갈스러운' 서양화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면 그만이다.

그러나 동양화의 경우 그림 옆에 그 그림을 한마디로 압축한, 그림의 제목과도 같은 화제(畫題)가 적혀 있어 자세히 보게 된다. 또 어떤 경우는 서너 글자가 쓰인 액자가 딱하니 걸려 있기도 하다. 그 액자를 보고도 무슨 글자인지 몰라서 읽어지지 않을 때 슬쩍 당황하게 된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주인에게 그것이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묻기도 하지만 주인도 모르면 그냥 낙담하게 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한자를 두려워하고 외면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한자를 익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이미 한자를 많이 익혔기 때문에 그렇지 자신들의 눈에는 한자가 너무도 생소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는 상형문자(象形文字)가
기본이다.**

상형이라고 하면 사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초급 한자 익히기 교재를 보면 모든 한자가 그림을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한눈에 금방 알아보는 글자들이 대부분이다. 산(山), 천(川), 풀(草), 해(日), 달(月), 불(火), 물(水), 나무(木), 쇠(金), 흙(土) 등은 일주일과 산천초목이다. 말(馬), 소(牛), 양(羊) 등은 가축이다. 한자를 익힐 때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를 그림으로 익히면 사실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자들이 한자의 글자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수글자들이기 때문이다. 한자에서 부수글자는 그 부수를 사용하는 글자의 의미를 통제한다. 가령 불 화(火)가 부수이면 불 화로 만들어지는 글자는 불의 속성, 즉 뜨거움(炎), 태움(焦), 끓임(燙), 지지고 볶음(煎), 밝음(煥), 빛남(熙)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한다. 불 화(火)를 부수로 만들어진 글자가 어둡다(暗), 차갑다(冷)는 의미를 절대 가지지 못하며 달리다(走), 미끄러지다(滑), 굽다(擻) 등의 의미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수글자인 가장 기본적인 한자를 익히면 아무리 모르는 글자라도 그 뜻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TIP 부수글자인 가장 기본적인 한자를 익히면 아무리 모르는 글자라도 그 뜻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한자는 부수글자가 모두
상형문자는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사문자(指事文字)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거나 사물의 상태를 지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사문자는 숫자 일이삼사오(一 二 三 四 五)와 어떤 기준의 위와 아래를 표시한 윗 상(上), 아래 하(下), 신의 계시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나타나는 보일 시(示), 나무나 풀의 뿌리가 땅으로 들어간 것을 가리키는 들 입(入), 입을 벌린 모양 가로 왈(曰) 등이 있다. 또한 부수글자 중에는 원래 있던 글자의 뜻과 뜻(意)을 모아서(會) 만든 글자인 회의(會意)글자도 있다. 밭(田) 사이에 있는 땅(土)에 집들이 있는 마을 리(里), 쌀밥(禾)을 입(曰)에 넣으면 향기롭다, 향기 향(香)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익힐 때 우선 214개의 부수글자를 외워야 한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익혀야 좋다.

한자를 익힐 때 우선 214개의 부수글자를 외워야 한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익혀야 좋다.

TIP



한자는 한 가지 의미를

다른 모양의 글자로 표기한 것이 더러 있다.

우선 손의 의미를 가진 글자를 살펴보자. 손 수(手=扌), 손 툽 조(爪), 또 우(又), 왼손 좌(卩), 성 윤(尹)의 'ㄷ'모양 등이 모두 손이다. 가령 받을 수(受)는 손(爪)과 손(又) 즉 두 손으로 보자기(巾)를 들고 물건을 받는 모양이다. 벗 우(友)는 손(又)과 손(又)을 마주 잡은 친구이다. 임금 군(君)은 손에 지휘봉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口)하는 모습이다. 칠 복(支=攴)은 등글월 문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글월 문(文)과는 아무 상관 없고 손(又)에 막대(卜)를 잡고 두드리다는 의미이다. 이는 창 수(攴)와 같이 사용된다.

가령 가서(彳) 손에 창(攴)을 잡고 노역을 하다, 역(役)과 같은 글자이다. 아이(子)에게 문자(爻)를 익혀 바른길로 가라고 가르치다(攴=攴)는 교(敎)이다. 그리고 손(扌)에 벼 두 포기(禾禾)를 겹쳐서 잡다는 겸할 겸(兼)이다. 일 사(事), 쓸 소(掃) 등도 모두 손과 연관되는 한자이다.

또한, 가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도 많다. 두인변, 즉 조금 걸을 척(彳)은 쉬엄쉬엄 갈 착(辵=辵)보다 머리카락(彡)이 하나 작은 모양이니 조금 천천히 걸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고 책받침이라는 착(辵)은 쉬면서 멀리 걸어간다고 보면 된다. 느릿느릿 길게 걸어가는 모습 인(亻)도 있다.

그리고 떠나다는 의미의 발(發)에서 발(𠂆)은 모래밭에 찍힌 발자국이라고 보면 쉽다. 또 뒤 후(後)처럼 길을 갈 때 (彳) 어린아이(작을 요(幺))는 어른 뒤를 천천히 걸을 쇠(女) 수 밖에 없으므로 뒤라는 뜻이 나온 것이다.

발이 서로 엇갈린 모양의 어그러질 천(夊)은 춤출 무(舞),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의 발 족(足)에서 머리(口)를 베어버리면 그칠지(止)가 되고, 걷던 사람(足)이 흙먼지(土)를 날리며 달리면 달릴 주(走)가 된다. 또 비수(比(匕))나 화살(矢)을 든 사람이 눈앞에 완전히(了) 다가와(발 소(疋)) 기웃거리면 의심(疑)이 생기게 된다.

한편 작은 조각(彡)여러 개를 실(糸)로 기우면 이을 계(繼)가 되고 도끼(斤)로 잘라버리면 끊을 단(斷)이 된다. 이처럼 한자는 조각 퍼즐과 같이 글자와 글자를 서로 이어서 그림을 만들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TIP

한자는 조각 퍼즐과 같이 글자와 글자를 서로 이어서 그림을 만들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형성글자는 소리가

일정하게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靑(靑)은 어떤 부수가 붙어도 靑(靑), 淸(淸) 두 가지 발음만 난다. 또 倉(倉)은 무조건 창(창)으로만 발음된다. 가죽 위(韋)는 호 위(衛), 둘레 위(圍)처럼 대부분 위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한자의 음도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자가 모양과 뜻이 변한 것도 있다. 주검 시(尸)는 원래의 의미와 달리 다른 글자와 붙을 때 영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영덩이에 털(毛) 달린 꼬리 미(尾), 영덩이에서 물(水)이 나오는 오줌 뇨(尿), 영덩이에서 빼(比(比))소리가 나면 방귀 비(屁)가 된다. 그러나 시(尸)가 집 호(戶)로 변형된 것도 있다. 집 옥(屋)이다. 얼음 빙(氷)은 부수로 쓸 때 이수변(冫), 냉동(冷凍)으로 쓰인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한자는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퍼즐 문제가 된다.

칭찬합시다!

www.gne.go.kr > 칭찬합시다! 코너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은 의견을 모아 매거진에 실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혜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해 봉황초등학교 1학년 1반 담임을 맡으셨던 김혜석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줄 알지만,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로써 대신합니다. 이번에 구지초등학교로 발령 나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워킹맘인 저는 아침마다 아이와 전쟁이었습니다. 깨워도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들이 저녁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애를 먹이다가 결국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버릇을 고치고자 깨우지 않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각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과 약속을 합니다.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약속한 녹음파일을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셨고, 이들은 선생님 전화에 눈뜨고 스스로 씻고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더군요. 아이들에게 뭐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 1년 동안 너무 애쓰셨고, 감사했습니다!!!!

이연희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참 잘해주십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모르는 것도 잘 알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선생님. 무서울 때는 매우 무섭고 웃으실 때는 예쁘신 우리 선생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4학년 이 끝납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나가면서 만나요. 그리고 2016년 작년 동안 저희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 학교(창원장천 초등학교) 4-2반 이연희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민원실 양희숙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055-268-1004 번호로 전화했더니 양희숙님이 받아 주셨습니다. (직함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던 중에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위 민원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짜증이 잔뜩 났던 저의 마음이 풀릴 정도로 전화도 정말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바쁘실 텐데도 직접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사실 관공서에 전화를 걸 때마다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응대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목계초등학교 김현순 교장 선생님, 김경생 교감 선생님, 박광훈 담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목계초등학교 졸업합니다.
저희 아이는 참 좋으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박광훈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목계초 모든 선생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학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맥을 이어 발전시켜나가는 목계초 어린이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젊고 이쁜 창원 완월초등학교 송광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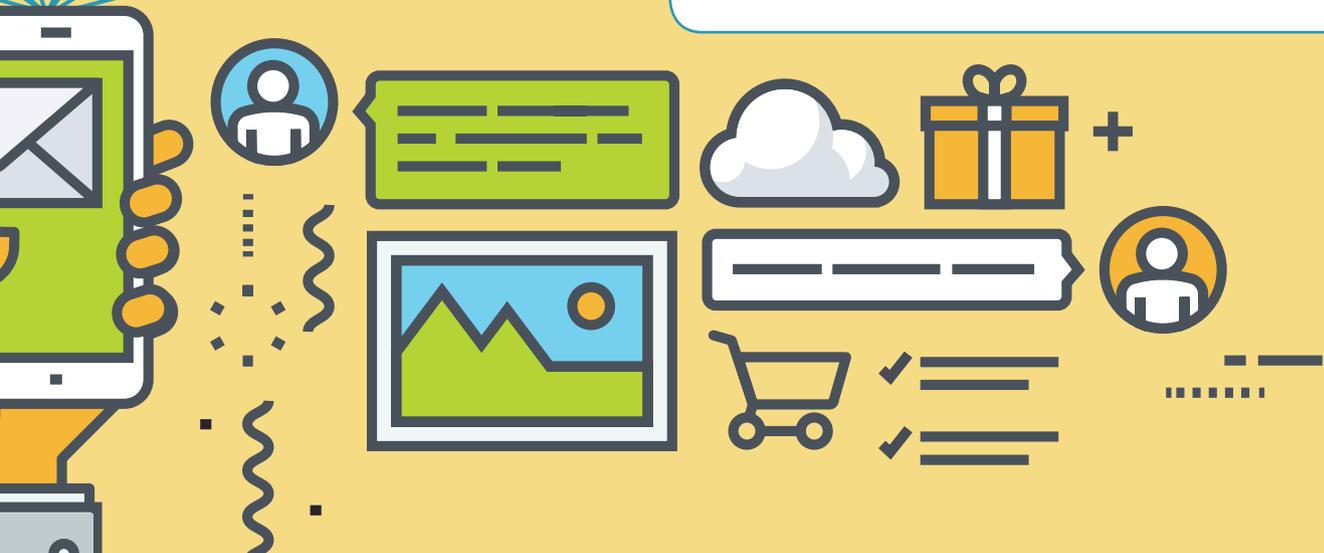
교육목표(동심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와 꼭 닮은 젊고 이쁜신 우리 담임선생님 송광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못하고 지냈는데 선생님께서 다 알려주시네요.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나다, 친구 사이에 인기가 많다, 체육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미술과에 재능이 아주 많다 등등. 우리 아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을 어찌 안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1년동안 교생 정말 너무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상은 우리 선생님 다 드리고 싶네요.

경남 학부모지원센터 교직원분을 칭찬합니다.

저는 경남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소 선정에서부터 처음 사람들을 맞이하는 반가운 따뜻한 태도, 교육 진행을 위한 섬세한 준비며 필요한 사항을 잊지 않게 알려주는 문자며 늘 준비되어 있는 간식에 마지막엔 감동적인 파티까지 학부모지원센터의 노력과 섬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 교육 이후 저의 육아는 이제 즐거운 하나의 놀이가 되었고, 저는 이런 획기적인 지원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의 배려가 부모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워서 이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로 변하리라는 확신을 해 봅니다.

안민초 3학년 1반 이연미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너무 따뜻한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선생님을 만난 것도 3학년 1반 아이들한테 큰 행운이다 싶어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듬별로 선생님과 토요일 학교에서 만나서 애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겨주시고 (주말에 다른 사적인 일로도 바쁘실 텐데... 신랑과 저는 그날 입이 닳도록 선생님 칭찬을 했다는) 일기장에 한줄 한줄 진심어린 메시지와 학부모와 상담 시 진심 어린 아이에 대한 걱정과 격려... 말로 다하지 못할 만큼 선생님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저도 몇십 년이 지나도 사랑 듬뿍 주신 선생님이 기억나고 그 시절 참 사랑 많이 받았구나하고 평생 기억나듯 우리 3학년 1반 아이들에게도 평생 기억에 남을 선생님이 될 듯하네요.



새 학기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

초등학생 입학 완성도



3월.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엄마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느낄 새 없다.

일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궁금증과

속닥속닥 들려오는 많은 말에

엄마들의 두 귀는 쉴 새 없이 팔랑댄다.

‘입학준비, 이 정도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교육청이 제공하는 최신의 정보로

아이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그리기를 시작해보자.



#1 학교생활 패턴 익히기!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화장실' 패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낯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이다. 학교는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고, 쉬는 시간에 용변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또 용변에 대해선 유아기부터 미리 교육을 받지만, 초등학교는 그냥 앉는 것이 아닌 '쪼그려 앉는' 변기가 있는 곳도 있고, 휴지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직접 뒤처리 방법, 쪼그려 앉을 때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는 법 등을 알려주면 좋다.

'경청'하는 패턴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경청'이라는 말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다. 만 6~7세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는 곧잘 하지만 상대 이야기는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같은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경청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집중'하는 패턴이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나아가 잘하는) 아이이길 바란다. 그래서 공부 습관,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습에 눈길이 가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다. 그러나 이는 집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해진 수업시간은 40분인데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집중력은 20분 남짓이다. 그렇기에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습이 필요하다.

#2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필요한 것일까?

안전한 등하굣길과 소재 파악을 위한 스마트폰 구매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8살 아동에게 매일 스마트폰을 챙기게끔 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자극적인 다양한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학습 습관을 익히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 구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시행하는 등학교 안심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건강은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걸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를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기록 4가지를 확인한다. **접종대상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와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 항체가 떨어져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집단생활을 하므로 우리 아이 혹은 아이의 친구들로 인해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의 감염병은 가정과 지역사회에까지 퍼질 우려도 있는 만큼 표준 일정에 맞춰 접종을 꼭 완료해야 한다. 그렇기에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이의 보호자는 입학 전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의 전산등록을 확인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활용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02 자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상호대차 서비스

상호대차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자료가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에 보고 싶은 책이 없다면,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호대차 신청을 하세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도서관의 책이 내 곁으로 온답니다.



학교도서관에서도 24개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읽을거리가 풍부한 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에서 이용한다면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의 독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TIP 누구나 회원이면 1년에 20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



03 내가 원하는 곳에서 책을 받을 수 있다! 택배 서비스

택배서비스는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가정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료를 받아 보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이나 일반 이용자는 소정의 택배비가 필요하네요.



TIP 택배서비스 이용 전 꼭 통합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세요.

04 수만 종의 콘텐츠로 알차게 구성된 전자도서관 100% 활용하기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책읽기가 가능한 경상남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을 살펴볼까요? 경상남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은 3만 4천여 종의 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전자잡지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어요.

TIP 전자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통합홈페이지(gnelib.gne.go.kr) 또는 통합전자도서관(ebook.gne.go.kr)으로 접속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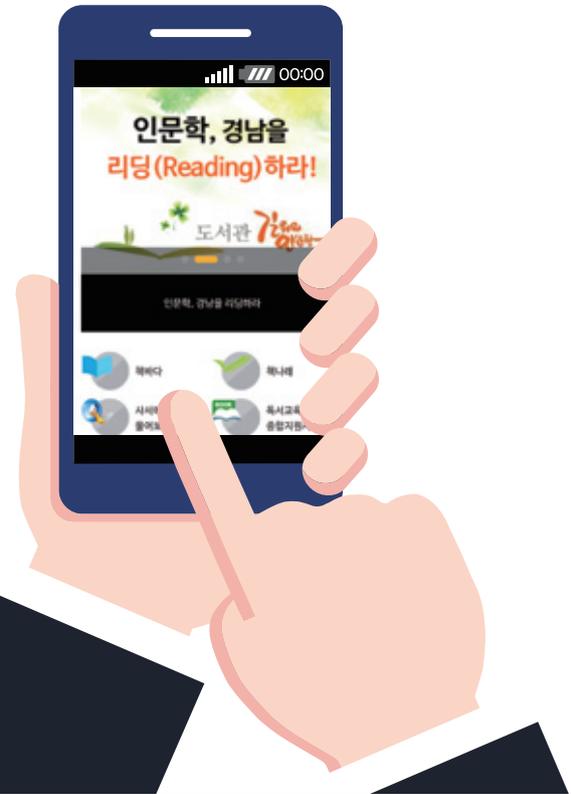


05 도서관을 내 손 안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 손 안에 도서관이 쓰~욱 들어와요. 통합공공도서관 앱을 설치해 보세요. 모바일 회원증은 기본이고 24개 도서관 소식과 추천도서·신간도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데이터 통신 기능도 있어요. 나의 도서관에서는 대출이력 조회와 도서반납 연기·예약을 할 수 있고 희망도서신청에서는 도서관에 없는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바코드 검색은 도서의 ISBN 바코드를 스캔만 하면 그 책이 소장된 공공도서관을 알 수 있어요.

TIP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으려면,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검색을 먼저!



06 모바일 앱 서비스 주요 내용

- 통합공공도서관**
24개 공공도서관 소식을 한눈에!
- 추천도서**
한눈에 보는 신간, 베스트 대출 도서!
- NFC 대출**
스마트폰으로 직접 도서 대출
- 전자도서관**
언제 어디서나 전자책, 오디오북!
- 나의 도서관**
대출이력, 연기, 예약을 한곳에서!
- 회원증**
회원증이 없어도 걱정 그만!
- 희망도서신청**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다면 신청!
- 바코드 검색**
ISBN 바코드로 소장 도서관을 확인!

07 도서관송을 다 함께 불러볼까요?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의 달라진 서비스 주요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셨나요?
우리들의 소중한 지적 재산인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손쉽게 적극 활용해보아요~



도서관 Song~

함께 불러요!

1 한번만 가입하면~

2 1십년가까 도서관 이용 가능한데~

3 삼천포에서 벌리고, 창원 양산 어디에서든 반납 가능~

4 로그인 통합검색 상세보기 신청 네번의 클릭이면~

5 오! 멀리서 책이 오네~

You 유를 위한 양호대차 만난건~

7 러키야! 대박

편리해 여기저기 한 눈 팔지말고 도서관 좋아해 아이중아 책이중아 통합도서관서비스

8 팔딱 팔딱 바쁠 때면~

9 구해주 택배대차줄~

10 열 번이라도 책이 기쁨으로~

인제나~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03

우리가 스마트폰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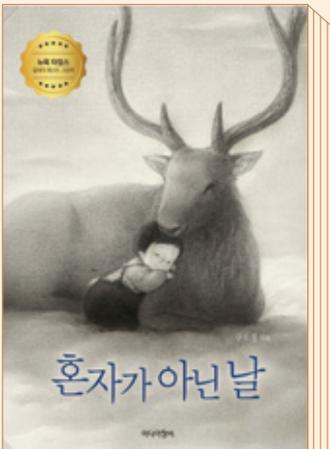
저자 김현정
판형 148 × 210
면수 228쪽

<책 속 한 구절> 우리가 디지털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면... 스마트한 심대들답게, 스마트하게 삶을 살아보자. 진짜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디지털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게끔 말아야.

<우리가 스마트폰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아예 디지털 기기를 쓰지 말자고 하기보다는,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기기를 자신에게 이롭게 사용하고 가상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이롭게 성장시킬 도구로서 디지털 기기와 가상세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온오프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으로써 가상세계만큼 현실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재미도 알게 될 것이다.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04

혼자가 아닌 날

저자 구오징
판형 203 × 285
면수 112쪽

오늘도 아이의 엄마 아빠는 직장에 간다. 늘 그렇듯 혼자 남겨진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엄마놀이를 하다가 장난감도 가지고 논다. 혼자 노는 것이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심심하다. 그러다 발견한 가족 앨범 속 사진에서 할머니와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이는 옷을 입고, 머리로 단정히 한 다음 용돈 가방을 챙겨 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떠 보니 처음 보는 낯선 동네였다.

아이는 다시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05

갈매기 택배

저자 이시이 히로시
판형 190 × 259
면수 40쪽

<책 속 한 구절> ‘그렇구나! 내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점장님은, ‘그래, 맞아! 펭귄은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지.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네!’하고 생각했어요.

시원한 항구 도시의 갈매기 택배 가게는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날아서 택배를 배달해 준다. 아침부터 이웃 동네나 산 너머, 바다 끝까지 물건을 배달해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택배를 갈매기들이 배달해 준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택배 배달부들의 목에 걸린 배달 상자, 비행기 활주로가 떠오르는 비행 출입구, 배달부 모집 광고, 물고기 간식...

작가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즐거운 상상력으로 가득 채웠다. 연필과 색연필을 사용한 부드러운 터치와 색감만으로도 따뜻하고 착한 이야기가 기대된다.

특집뉴스

경상남도교육청 새로운 제2청사 소통의 시대를 열다



경상남도교육청, 커피 향이 머무는 행복한 책 읽기!

대입정보, 경남진로교육, 취업지원, 다문화교육 등 센터 운영과 연회장, 회의실, 북카페, 전시관은 도민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개청 기념 작은 음악회와 전시회를 열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제2청사 1층에 도민 누구나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었다. 북카페는 기존에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작은 공간을 벗어나 장서량과 시설, 공간 구성면에서 전문 북카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부터 ‘소통관’



도민과 소통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를
소개합니다.

지난 2월 2일 개청한 제2청사는 업무시설 4382.93㎡, 근린생활시설 155.52㎡, 주차장 1209.96㎡ 등 총면적 5748.41㎡로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다. 사무회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던 기존 청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2청사 시대를 열었다. 특히,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대어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도민들과 더욱더 소통하는 도교육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1.

도민들과 책으로 소통하는 공간 북카페 '지혜의 방'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도교육청 교직원, (주)센트랄이 기증한 도서 1만여 권이 있는 북카페 '지혜의 방'은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이다.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상설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경남도교육청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2.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

제2청사는 창의인재과, 교육복지과, 감사관 등 3개 부서와 대입정보센터, 경남진로교육센터, 취업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등 4개 센터, 학교시설 감리단 및 학교안전공제회가 배치됐다.

#3.

직원 복지 향상은 교육서비스 질 향상의 지름길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회의실과 운동방으로 꾸며진 여자 휴게실, 체력단련실을 두어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층별 배치도

8F	연회장 체력단련실
7F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1 소회의실 2
6F	교육시설감리단
5F	감사관
4F	교육복지과 학교안전공제회 전산실
3F	창의인재과 취업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2F	성찰실 대입정보센터 경남진로교육센터 관리실
1F	북카페 '지혜의 방' 전시실

NEWS

교육 뉴스

EDUCATION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강화

01

학교시설내진보강 200억원, 학교석면제거 140억원 등 투입

경상남도교육청은 2월 17일 교육지원청 등 시설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내진 설비와 석면제거 예산을 대거 투입해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학교시설 내진공사에 200억원, 학교석면 제거 공사에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시설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을 향상해 지진 등 재해 발생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시설에 해마다 20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자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또, 석면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우레탄 시설 교체도 신학기 이전에 132개 대상학교 중 93%인 123개교에 공사를 완료해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교육청, 반부패 청렴정책 강도 높게 추진한다

02

“201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기본 계획” 시달 청렴업무 담당과장 회의 갖고 본격 추진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기관장과 간부가 솔선수범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는 ‘201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감하는 청렴분위기 조성, 업무개선을 통한 청렴시스템 구축,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중점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 계획에는 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경남도교육청 청렴추진단과 담당 장학관, 사무관으로 구성하는 청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청렴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관장을 중심으로 청렴 정책관리자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며,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T/F를 매월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인프라를 조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학교급식 종합개선대책, 이제는 현장에서 실행

03

도내 학교급식관계자 2,840명, 연수 실시 식재료 안전성 확보, 투명성 강화 등 학교급식 만전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합개선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도내 전 학교 행정실장·영양(교)사·조리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담당자 등 총 2,840명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10일간에 걸쳐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그동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매년 실시하던 학교급식기본방향 공유 연수를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연수 대상을 도내 전 학교급식관계자로 확대해 실시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 ▲2016년 경상남도 학교급식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개선사항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안내했다. 또한, 감사 수감사례 및 학교급식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학교급식 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 역량 강화를 꾀하고 식중독 예방과 대처법 등 급식 안정화를 추구한다.



“비 오는 날 양말 젖지 않아서 좋아요!”

04

경상남도교육청, 올해 학교 현관 신발장 97개교 설치 초등 70교·중 18교·고 6교·특수 3교... 9억 8900만원 예산 들여

경상남도교육청은 비 오는 날 학생들이 양말이 빗물에 젖거나, 추운 겨울날 차가운 복도바닥을 실내화를 신지 않고 시린 발을 참고 현관에서 교실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현관 신발장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창원 신월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70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3개교, 모두 97개교에 9억 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학교 현관 주변 신발장 공간 확보가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혜 학생 수는 2만 2,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 신월초등학교 김영숙 교장은 “비 오는 날 학교 현관 출입구 입구에 양말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혹은 종이상자)를 깔아 놓는 등 아이들의 양말이 빗물에 젖거나, 추운 겨울날 3~4층까지 시린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NEWS

교육 뉴스

EDUCATION

유휴 구암중학교 학교시설, 책 50만권 갖춘 문화도서관으로

05



도교육청·출판도시문화재단 '마산 지혜의 숲' 설립 업무협약 체결 독서·체험·문화공간 어우러진 『문화복합시설』로 조성

경상남도교육청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3월 1일자로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자중학교를 통합하면서(통합학교명: 구암중학교) 유휴시설로 남은 구암중학교를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도서관을 갖춘 문화복합시설인 『(가칭) 마산 지혜의 숲』을 설립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월 22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재)출판도시문화재단과 (가칭) '마산 지혜의 숲'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가칭) 마산 지혜의 숲』이 기존 도서관 개념을 탈피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출판도시문화재단으로부터 전문적인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 받는다. 『(가칭) 마산 지혜의 숲』은 구암중학교를 책 50만권으로 갖춘 독서와 체험·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해 학생·학부모·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지혜의 숲은 방문객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관광자원으로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98회 3.1절 기념식 행사 교육청 자체 추진

06

독립선언문 학생대표 낭독 및 밀양아리랑·독도 플래시 몹 학생 주관 기념공연

경남의 독립유공자 김원봉 후손 등이 참여하여 행사 의미 강화

경상남도교육청은 3월 1일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경남도교육청 관계자, 창원관내 초중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및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동아리인 무학여고 리멤버, 토월고 역동(역사동아리)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8회 3.1절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3.1절 기념식을 통하여 3.1절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청소년들의 교육적 정신 함양한다.

이날 행사는 개식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후 경남의 초·중·고등학생 대표 6명이 독립선언문을 나누어 낭독함으로써, 3.1절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학생들이 되새겼다. 이어서 반송초등학교 합창단(학생 16명, 어머니 7명으로 구성)의 3.1절 노래 제창과 밀양아리랑 플래시 몹팀(밀양초 11명, 수산초 10명으로 구성)의 기념공연과 독도 플래시 몹팀(명지여고 11명)의 기념공연을 펼쳤다.

특히 행사에는 김원봉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태영 선생, 윤세주 열사 후손인 윤일선 선생, 박지원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달홍 선생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개소

07

다같이 배우고, 다가치 기르는, 경남 영어올림 교육 실현

경상남도교육청은 23일, 제2청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다문화교육센터는 2017년 3월부터 학교혁신과 산하 다문화국제교육 담당 소관으로 운영한다. 제2청사 3층에 30평 내외 면적으로 행정지원실, 상담실, 보듬누리교실, 나눔실 등 4개 실로 구축해 3월부터 지원서비스가 이뤄진다.

경남도교육청은 2017년 교육부 주관 '지역다문화교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육부 예산 1억 8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예산 2억 6천여만원도 확보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

교육 지원 인력으로 초·중등 파견교사 2명을 총원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코디 1명이 배치돼 중도입국학생 공교육 유입 안내와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센터는 다같이 배우고, 다가치 기르는, 경남 영어올림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운영 기본 방향은 교육, 연구, 연계 세 영역으로 구성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올해 취업률 질 크게 향상

08

공무원 20명, 공기업 34명, 대기업 217명, 금융권 31명, 부사관 159명, 해외 58명 취업 확정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모니터링 결과 취업률과 취업의 질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모니터링 결과(2017.1.1. 기준)에 따르면,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국가직지역인재 9급공무원(5명), 경상남도지방공무원(9명), 경남교육청기술직공무원(3명)에 합격했다. 또, 함양군청(1명), 가평군청(1명), 군무원(1명)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며 군부사관도 159명이 합격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직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또, KCC인삼공사(2명), 국립공원관리공단(2명), 국민건강관리공단(4명), 부산교통공사(3명), 한국도로공사(2명) 등 공기업 취업이 34명, KB국민은행(3명), BNK경남은행(5명), KDB산업은행(1명), 삼성화재(6명) 등 금융기관에도 31명이 취업했다.

특히, 삼성전자(16명), 삼성중공업(10명), 이랜드건설(18명), 대우조선해양(10명), 두산중공업(14명) 등 217여명이 대기업에 취업했고 호주(48명), 뉴질랜드(10명) 등 해외에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운영과 체계적인 취업지도 등의 성과로 분석된다.



NEWS

교육위원회
의 정 뉴스

EDUCATION



상임위원회 활동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5차 교육위원회 개최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제1차 교육위원회(11월 10일)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제2차 교육위원회(11월 25일)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요구 의뢰하였다.

그리고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거창연극고 신설, (가칭)김해대안고 신설, (가칭)경남교직원힐링센터 신설에 따른 교사(건물) 신축과 하동군 금남면 무인도서 2개 매각건은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할 것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다.

제3차 교육위원회(11월 29일)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과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제3~5차 교육위원회(11월 29일~12월 1일)에서는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누리과정 지원사업 1420억 5360만원을 비목신설하여 사업조정하고, 학교현관 신발장설치 사업조정 등 총 6건을 수정안 가결하였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3차 교육위원회 개최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제1차 교육위원회(1월 12일)를 개최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을 원안가결하였다.

제2차 교육위원회(1월 13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다. 제3차 교육위원회(1월 20일)에서는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원안가결하였다.

여행, 사람을 읽고... 삶을 쓰다

TRAVEL



문화가 있는 날 인문학 강연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

장소 북카페 '지혜의 방'

일정 3.29.(수) ~ 12.27.(수)
(매월 마지막 수요일)

시간 18:30 ~ 20:00

일정	강연 제목	강사	비고 (관련 도서명)
03.29.(수)	고딩, Sky를 날아오르다	박 응	수능대신 세계일주
04.26.(수)	둘이 합쳐 계란 세 판, 세계를 여행하다.	태원준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엄마, 내친김에 남미까지
05.31.(수)	유라시아 횡단으로 얻은 '아버지' 명함	빠빠가족(최동익)	빠빠가족, 버스 몰고 세계여행
06.28.(수)	탁PD와 유쾌한 여행수다를!	탁재형	탁PD의 여행수다 외
09.27.(수)	진로? 여행에서 찾는다!	옥패밀리(박임순)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
10.25.(수)	오늘의 행복을 꿈꾸는 부부	박진희 & 정도선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 거야
11.29.(수)	살아 숨쉬는 인생, 여행!	도용복	여행의 위대한 순간, 그래도 살아 있으라
12.27.(수)	세계일주 후 설계하는 인생 2막	오권태	세상을 향해, 권태를 쓰다

※ 강연 내용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별도 신청없이 강연 당일 참여 가능 (단, 6.28(수) 강연은 ㈜센트랄 직원 단체 참여 우선)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대표전화 055)268-1100 / 교육민원 055)268-1004 www.gne.go.kr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 구독 신청

발행시기 월간 신청방법 ·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신청 ...> 경남교육홍보관 ...> 매거진 신청/해지 · 모바일 신청 가능
구독료 무료 문의 홍보담당관 055)278-1784